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수 산 업 관 측 센 터
FISHERIES OUTLOOK CENTER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007-4 옥스퍼드 B/D 3층
TEL(02)2105-4920~5 FAX(02)2105-4939
<http://www.foc.re.kr> E-mail foc@kmi.re.kr
편집겸 발행인 이 정 환 인 쇄 정인&D
발 행 2006년 9월1일 등록번호 서울라0957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서는 수산물의 생산, 가격, 시장동향 등 수산물 전반의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매월 관측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관측정보 제공 및 수산업관측사업에 대한 설명은 홈페이지 (<http://www.foc.re.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넙치

통권 제35호 · 2006년 9월 1일 발행 · ISSN 1739-5283

9월호

수산물관측

F i s h e r i e s O u t l o o k R e v i e w

생산동향

- 8월 넙치 출하량, 전월 대비 20.0% 증가
- 지역별 출하량, 전 지역에서 증가
- 8월 양성 상태, 전월에 비해 다소 저조
- 8월 치어입식물량, 590여만 마리로 추정

사료동향

- 8월 생사료 사용량, 전월보다 16.9% 증가
- 공동어시장 8월 사료어 위판가격, 대부분 하락
- 7월 넙치 EP사료 판매량, 전월 대비 10.6% 증가

수출입동향

- 7월의 활넙치 수출량, 전월보다 크게 증가
- 7월 수출단가, 전월 대비 8.2% 상승

시장동향

- 브랜드 넙치, 전국 넙치 생산자의 6~7% 정도가 생산
- 넙치 브랜드화, 주로 사료 첨가물로 차별화

가격동향

- 8월 활넙치 산지가격, 전월 대비 상승
- 8월 도매가격 및 소비자가격, 전월 대비 상승

가격전망

- 9월 활넙치 도매가격, 약보합세 전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수산물관측센터
FISHERIES OUTLOOK CENTER

관 측 단 신

해양수산부, '수산물 지리적표시제' 연내 시행

- 해양수산부는 8월 2일 각 시·도 공무원, 품질검사원 및 관련업체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지리적표시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지리적표시제'는 제주 넙치, 해남 김 등과 같이 특정지역의 우수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지역명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로써 생산 국가만 표시하는 '원산지표시제'와는 차이가 있다.
- 해양수산부는 2006년 11월까지 대상품목에 대한 신청을 받고, 올해 말까지 대상품목 및 지역을 지정하여 고시할 계획이다.

2008년부터 넙치 양식업 대상 양식재해보험 시범 사업 실시

- 해양수산부는 2008년부터 육상수조식 넙치 양식업을 대상으로 양식재해보험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2007년까지 '양식재해보험법'을 제정하고, 육상수조식 넙치양식장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한 후 대상 재해와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수산물양식재해보험(안)에서는 주계약인 4대재해(태풍, 폭풍, 해일, 적조)로 인한 피해는 자기부담 비율이 15~30%이며, 특약인 어병으로 인한 피해는 자기부담 비율이 30%이다. 한편 보험료는 보험가액(생산량×표준가격)의 일정비율이 적용된다.
- 보험료는 보험가입 촉진과 보험료 부담의 경감을 위해 순보험료 50%, 부가보험료 100%를 국고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요율은 과거 9년간(1997~2005)의 자연재해를 고려하여 전국을 11개 권역으로 분류하고 지역별, 시설물별 차등요율제를 채택할 예정이다.

'2006 수산물관측백서' 발간 예정

- 지난 1년간의 수산물관측사업 추진결과를 종합·정리하는 수산물관측백서가 이번 달(9월)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되는 관측백서에는 김 이외에 넙치가 새로운 품목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집 필 진

황기형(총괄), 옥영수(생산동향, 가격전망), 강종호(사료, 시장동향), 김정협(관측단신, 생산동향), 이남수(시장동향), 박광서(수출입동향), 백은영(일본 해외동향), 김효진(가격·중국 해외동향), 신수정(자료수집)

요약

- 8월 넙치 출하량은 전월 대비 20.0% 증가한 3,288톤으로 조사되었다. 크기별로는 1kg 미만 출하량이 전월보다 증가한 반면, 1kg 이상의 출하량은 감소하였다. 지역별로는 전 지역에서 출하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8월 양성 물량은 9,990여만 마리로 전월보다 2.3% 증가하였다. 크기별로는 500g 미만 크기에서는 감소하였으며, 500g 이상은 전월보다 증가하였다. 한편 치어 입식량은 전월보다 소폭 증가한 590여만 마리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수온상승에 의한 어병의 발병과 적조로 인해 중소형어에서 폐사가 일어나자 추가적으로 입식한 양식어가가 많았기 때문이다.
- 넙치 양식어가의 8월 평균 생사료 사용량은 전월보다 16.9%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완도가 가장 크게 증가했으며, 기타 지역은 전월과 비슷한 수준의 사용량을 유지했다. 한편 EP사료의 7월 총 판매량은 전월보다 10.6% 증가한 969톤으로 조사되었다.
- 공동어시장의 8월 사료어 위판가격은 사료어 어획이 전월보다 증가하면서 다소 하락하였는데, 특히 풀치와 기타 어류가 20% 이상 하락하였다.
- 7월의 활넙치 수출량은 전월 대비 76.4% 증가한 240톤이었으며, 수출 단가는 kg당 13,004원으로 전월보다 8.2% 상승하였다.
- 브랜드 넙치를 생산하는 업체는 제주, 고흥, 해남을 중심으로 50여개 업체가 있으며, 이는 전국 넙치 생산자의 6~7% 수준이다. 주요 브랜드 넙치로는 특허청 상표 등록을 한 버섯넙치, 한방넙치, 백년초넙치 등이 있으며 지역 특산물을 사료 첨가물로 이용하고 있다.
- 8월의 활넙치 산지가격은 전월 및 작년 동월에 비해 상승하였는데, 이는 수출단가가 국내 내수단가보다 상승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도매가격은 모든 크기에서 전월 및 작년 동월보다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소비자가격은 바다마트는 상승하였으나, 대형소매점은 하락하였다.
- 9월 넙치 출하량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어 등 계절성 활어의 공급증가로 대체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활넙치 가격은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 동향

● 8월 넙치 출하량, 전월 대비 20.0% 증가

- 넙치 출하량은 전월에 비해 20.0% 증가한 3,288톤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작년 동월에 비해서도 26.8% 증가한 것이다. 8월의 넙치 출하량 증가는 여름 휴가철 피서지 소비 증가와 대일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 크기별 출하량을 보면, 500g 미만과 500~750g 미만의 출하량이 전월 대비 각각 188.2%, 115.3%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고수온기 어병과 적조에 의한 폐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소형어의 출하가 많았기 때문이다. 반면 750g~1kg 미만과 1kg 이상의 출하량은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크기별 넙치 출하 동향〉

(단위 : 톤)

구 분	2005년 8월	2006년			전월 대비 (%)	작년 동월 대비(%)
		6월	7월	8월		
합 계	2,593	3,376	2,741	3,288	20.0	26.8
500g 미만	297	64	68	196	188.2	-34.0
500~750g 미만	491	877	354	762	115.3	55.2
750g~1kg 미만	513	600	1,125	1,188	5.6	131.6
1kg 이상	1,292	1,835	1,194	1,142	-4.4	-11.6

* 당 센터 설문조사(2006.8.17~23) 결과

● 지역별 출하량, 전 지역에서 증가

- 8월 넙치 출하량은 전 지역에서 증가하였다. 완도의 경우에는 전월 대비 30.3% 증가한 1,246톤을 출하하였는데, 이는 대일수출 물량이 전월보다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 제주도는 전월 대비 11.0% 증가한 1,335톤이 출하되었는데, 이는 수출 물량의 증가와 함께 휴가철을 맞아 뼈채썰기용 출하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역별 넙치 출하 동향〉

(단위 : 톤)

구 분	2005년 8월	2006년			전월 대비 (%)	작년 동월 대비(%)
		6월	7월	8월		
합 계	2,593	3,376	2,741	3,288	20.9	27.8
제 주 도	1,051	1,586	1,193	1,335	11.9	27.0
완 도	772	1,147	956	1,246	30.3	61.4
기 타	770	643	592	707	19.4	-8.2

* 당 센터 설문조사(2006.8.17~23) 결과

8월 넙치 양성 물량, 전월보다 증가

- 넙치 양성 물량은 전월보다 2.3% 증가한 9,990여만 마리로 조사되었다.
- 크기별로는 500g 미만의 양성 물량은 전월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으나, 500g 이상에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형어의 출하 물량 증가에 비해, 연초에 입식된 치어가 성육기에 들어 중형어로 성장한 물량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크기별 넙치 양성 물량 동향〉

(단위 : 만 마리)

구 분	2005년 8월	2006년			전월 대비(%)	작년 동월 대비(%)
		6월	7월	8월		
합 계	9,320	9,993	9,771	9,992	2.3	7.2
250g 미만	3,636	6,031	5,427	5,213	-3.9	43.4
250~500g 미만	3,564	1,858	2,315	2,169	-6.3	-39.1
500g~1kg 미만	1,556	1,794	1,786	2,296	28.6	47.6
1kg 이상	564	310	243	314	29.2	-44.3

* 당 센터 설문조사(2006.8.17~23) 결과

양성 상태, 전월에 비해 다소 저조

- 8월 양식어가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36.8%는 양성 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반면, ‘전월과 동일하다’ 혹은 ‘좋다’는 응답은 31.6%로 동일한 비율을 보였다.
- 제주 지역의 성장 상태는 수온의 차이로 인해 섭이량이 감소하였지만, 적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어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 완도에서는 불안정한 해황에 의한 생리장애와 적조발생 등으로 인해 성장 상태는 다소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그 밖에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적조로, 영덕과 울진은 태풍 ‘우콩’에 의한 시설피해로 성장 상태가 좋지 못했다.
- 한편 폐사량은 전 지역에서 전월보다 증가했는데, 이는 고수온기의 잦은 어병 발병과 적조로 인해 중소형어 폐사가 늘었기 때문이다.

치어 입식량, 전월보다 증가

- 8월의 치어 입식량은 약 590만 마리로 전월의 입식량에 비해 증가하였다. 이는 수온상승에 의한 어병 발생과 적조로 인한 중소형어 폐사가 많아지자 추가적으로 치어를 입식한 양식어가가 많았기 때문이다.

9월 넙치 출하량, 증가할 듯

- 넙치 양식어를 대상으로 한 9월 출하 의향 조사 결과, 전월에 비해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지가격의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하반기 입식을 위한 의향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사료 동향

● 8월 생사료 사용량, 전월보다 16.9% 증가 <넙치 양식어가의 생사료 단위 사용량>

(단위 : kg/m³)

- 8월의 수조 단위면적(m³)당 생사료 사용량은 평균 9.7kg으로 전월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완도가 전월 대비 가장 크게 증가한 반면, 기타지역은 거의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7월	8월	전월 대비(%)
평균	8.3	9.7	16.9
제주	9.0	10.0	11.1
완도	9.9	13.7	38.4
기타	4.6	4.6	-

* 당 센터, 표본어가 설문 결과

주 : 7월은 확정치이며, 8월은 잠정치임

● 8월, 공동어시장 사료어 위판가격 하락 <사료용 선어 위판가격 추이>

(단위 : 원/kg)

- 8월의 사료어 위판가격은 사료어 어획이 전월 대비 증가하면서 다소 하락하였다.
- 한편,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의 사료어 평균 공급가격은 국산 전갱이가 kg당 615원, 중국산 청어는 485원이었다. 경북어류양식수협에서는 국산 곤쟁이가 kg당 213원, 중국산 까나리는 400원에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사료업체에서는 중국산 까나리가 kg당 평균 336원에 판매되었다.

구분	2005년 8월	2006년 7월	2006년 8월	전월 대비 (%)	작년 동월 대비(%)
갈고등어	435	506	486	-4.0	11.7
전갱이(하품)	1,033	778	682	-12.3	-34.0
폴치	460	533	426	-20.1	-7.4
멸치류	380	329	354	7.6	-6.8
기타어류	-	346	246	-28.9	-

자료 : 부산공동어시장, 2006. 8. 26 기준

● 7월의 넙치 EP사료 판매량, 전월 대비 10.6% 증가

- 2006년 7월에 판매된 넙치 EP사료량은 전월에 비해 소폭 증가한 969톤이었으며, 분말사료는 전월에 비해 24.4% 감소한 989톤이었다.

<사료 생산업체의 넙치 배합사료 판매량>

(단위 : 톤)

구분	넙치 EP				넙치 분말			
	6월	7월	전월 대비 (%)	작년 동월 대비(%)	6월	7월	전월 대비 (%)	작년 동월 대비(%)
합계	876	969	10.6	67.4	1,309	989	-24.4	24.4
고려특수	142	105	-26.1	18.0	122	59	-51.6	-45.4
수협사료	151	188	24.5	13.3	312	322	3.2	203.8
우성사료	161	290	80.1	271.8	304	401	31.9	94.7
천하제일	174	96	-44.8	-22.6	287	53	-81.5	-55.1
기타	248	290	16.9	137.7	284	154	-45.8	-40.1

자료 : (주)CJ 양어사료팀

수출입 동향

7월의 활납치 수출량, 전월에 비해 크게 증가

- 7월의 활납치 수출량은 240톤으로 전월에 비해 76.4% 증가하였다. 이는 일본내 자국산 활납치 공급물량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7월까지의 누적 수출량은 작년 동기간에 비해 39.8% 감소한 1,675톤이었다.

〈7월 활납치 수출 동향〉

(단위: 톤, 만 달러)

구분	2005년		2006년				전월 대비 (%)	작년 대비 (%)	
	7월		6월		7월			당월	누계
	당월	누계	당월	누계	당월	누계			
물량 ¹⁾	383	2,784	136	1,435	240	1,675	76.4	-37.4	-39.8
금액 ²⁾	391	2,978	184	1,615	355	1,970	92.9	-9.2	-33.9
단가 ³⁾ (원/kg)	9,285	9,385	11,944	9,725	13,004	10,146	8.9	40.1	8.1

자료: 1), 2) 관세청, 「수출입통계」, 2006년 7월은 잠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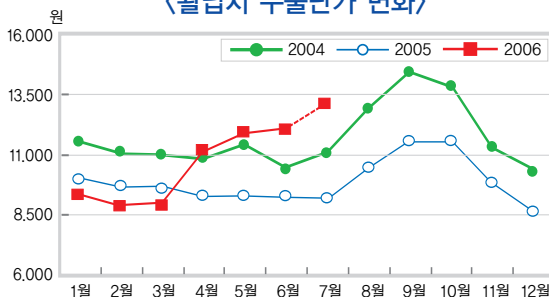
3)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 「활어수출입통계」

주: 활납치류는 활가자미, 활서대를 포함(현재 활납치만 수출되고 있음)

7월 활납치 수출단가, 전월 대비 8.2% 상승

- 7월의 활납치 수출단가는 kg당 13,004원으로 전월 대비 8.2%, 작년 동월 대비 28.6% 상승한 가격이다. 이러한 수출단가의 상승세는 8월에도 지속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활납치 수출단가 변화〉



자료: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 「활어수출입통계」

해 황 예 보

9월의 수온전망(국립수산물과학원) (기간: 9월 1일~30일)

- 9월의 해역별 수온분포는 동해 중남부 해역 21~26℃, 남해 22~28℃, 서해 중남부 해역 20~26℃의 범위를 보이겠으며, 평년에 비해 연안의 일부해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역에서 평년상 또는 1℃ 내외의 고온상을 보이겠다. 한편 수온약층은 태양복사열의 감소로 점차 약해지고 깊어지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 동향

※ 이번 시장동향은 전국 44개 양식업체를 대상으로 브랜드 넙치 생산현황을 조사한 결과이다.

● 브랜드 넙치생산, 전국 넙치 생산업체의 6~7%가 참여

- 브랜드 넙치를 생산하는 업체는 제주, 고흥, 해남지역을 중심으로 50여 개가 있으며, 이는 전국 넙치 생산자의 6~7% 수준이다. 조사대상 브랜드 넙치는 총 6종류로 44개 업체가 생산하고 있으며, 주로 영어조합법인 또는 생산자 중심의 공동체 등을 통해 공동생산, 공동출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주요 브랜드 넙치로는 특허청 상표등록을 한 버섯넙치, 한방넙치 및 백년초넙치 등이 있으며, 지역 특산물을 사료 첨가물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최근에 브랜드화가 실시되고 있다.

〈 주요 브랜드 넙치의 생산현황 〉

지역	브랜드 명	업체수	생산업체명	사료첨가물	비 고
제주	버섯넙치	6	버섯광어 영어 조합법인	표고버섯	• 꼬리표(Bar Code)에 생산이력정보 제공, 상표등록 • 국내 24개 판매점을 통해 국내유통 • 주로 일본으로 수출함/한국, 일본, 중국, 특허등록 • kg당 500~1,500원 이상 높은 가격대 형성
제주	한방넙치	10	한방광어 협의회	한약재료	• 어보산을 통해 롯데마트 각 지점으로 납품됨 • 특허등록 및 상표등록이 되어 있음 • kg당 500원 이상 높은 가격대 형성
제주	백년초넙치	12	일출봉 영어조합법인	백년초 (선인장)	• 제주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와 공동개발 • 상표등록: 국내(백년초광어), 일본(사보텐히라메)
제주	십전대보탕넙치	8	한라산 영어조합법인	십전대보탕 재료	• 2006년 초에 법인 설립 • 인삼, 감초, 생강, 황기 등의 십전대보탕 재료
해남	녹차넙치	1	신해수산	녹차	• 성어 5천 마리 생산, 치어 2만 마리 육성 중 • 횡집에서 메뉴의 한 종류로 판매 중(광주) • 해남해양수산사무소 주관 시험양식중
고흥	유자넙치	7	고흥어류양식 공동체	유자	• 치어 2만 마리 육성 중, 고흥해양수산사무소 주관 • 유자넙치 시식용 300kg을 평가함(7월)

주: 위의 브랜드 넙치 외에도 사조CS(주) 제주양식장의 인삼넙치(1993년), 키토산넙치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마늘, 감귤 등의 첨가물을 이용한 브랜드 넙치 개발이 추진 중임

* 전국 브랜드 넙치 생산자단체 및 각 지역 해수어류수협 전화조사(2006.8.18~22) 결과

● 브랜드 넙치, 주로 사료 첨가물로 차별화

- 넙치 브랜드화는 표고버섯, 한약재료, 녹차, 유자 등과 같은 사료 첨가물이 이용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특허청 상표등록, 바코드를 이용한 이력정보 제공 등의 특징이 있다. 또한, 브랜드 넙치는 생산자 중심으로 자체 개발하는 형태와 해양수산사무소 등의 관 주도 또는 공동개발형태가 있다.
- 넙치의 브랜드화는 대일수출을 위해 추진되어 왔으며, 국내시장에서 제품보급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다.

가격 동향

● 8월 활넙치 산지가격, 전월 대비 상승

- 산지가격은 수출단가가 국내 내수단가보다 상승하면서 전월 대비 5%, 작년 동월 대비 20% 이상 상승하였다.
- 지역별 · 크기별로는 제주에서 1kg 크기의 가격이 전월 대비 7.5%로 가장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도는 570g과 770g 크기의 산지가격이 전월 대비 11% 이상 올랐는데, 이는 수요에 비해 같은 크기의 공급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활넙치의 크기별 산지가격 동향〉

(단위 : 원/kg)

구분		2005년	2006년		전월 대비 (%)	작년 동월 대비 (%)
		8월	7월	8월		
제주	500g	7,300	9,930	10,500	5.7	43.8
	700g	8,300	10,910	11,500	5.4	38.6
	1.00kg	9,800	12,560	13,500	7.5	37.8
	1.10kg	10,300	13,090	14,000	7.0	35.9
	2.00kg	17,500	20,500	21,000	2.4	20.0
완도	570g	8,500	10,226	11,500	12.5	35.3
	770g	9,000	11,194	12,500	11.7	38.9
	1.03kg	10,000	13,032	14,000	7.4	40.0
	1.13kg	10,500	13,532	14,500	7.2	38.1
	2.03kg	16,000	20,742	20,500	-1.2	28.1

자료 : 각 지역 해수어류양식수협

주1) : 2005년 8월과 2006년 7월은 평균치, 2006년 8월은 22일 당일 가격임

2) : 제주도는 중량이 각 크기별로 +50g, 가격은 ±500원/kg 차이가 있음

● 도매가격, 전월 대비 상승

- 활넙치 도매가격은 8월 들어 산지 소비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시장공급량이 충분하지 못해 모든 도매시장에서 전월 및 작년 동월 대비 상승하였다. 지역별로 인천은 500g, 하남은 2kg, 부산은 1kg 크기의 도매가격이 전월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활넙치의 도매가격 동향〉

(단위 : 원/kg)

구분		2005년	2006년		전월 대비 (%)	작년 동월 대비 (%)
		8월	7월	8월		
인천활어 도매업 협동조합	400g~500g	8,800	11,250	12,500	11.11	42.05
	900g~1.0kg	11,000	12,800	14,100	10.16	28.18
	2.0kg	17,500	21,800	22,600	3.67	29.14
하남활어 유통조합	400g~500g	9,500	11,300	11,800	4.42	24.21
	900g~1.0kg	11,300	13,800	14,600	5.80	29.20
	2.0kg	17,000	20,500	22,300	8.78	31.18
부산활어 도매업 협동조합	400g~500g	8,000	10,750	11,300	5.12	41.25
	900g~1.0kg	10,500	13,250	14,000	5.66	33.33
	2.0kg	18,600	20,500	21,500	4.88	15.59

주 : 각 시장별 조사가격, 2006년 7월은 평균치, 2006년 8월은 20일까지 잠정치

● 바다마트의 소비자가격, 전월 대비 상승

- 바다마트의 소비자가격은 전월 대비 0.3% 상승한 kg당 30,294원이었으며 피쉬세일은 전월과 동일한 kg당 27,900원이었다. 한편 대형소매점은 전월 대비 3.1% 하락한 kg당 29,837원이었다.

〈활넙치 소비자가격 동향〉

(단위 : 원/kg)

구분	2005년	2006년		전월 대비(%)	작년 동월 대비(%)
	8월	7월	8월		
바다마트 ¹⁾	30,005	30,208	30,294	0.3	1.0
대형소매점 ²⁾	29,871	30,789	29,837	-3.1	-0.1
피쉬세일 ³⁾ (싱싱회)	-	27,900	27,900	0.0	-

주 : 1) 수협중앙회 잡설 본점의 활넙치 평균 가격(부속 일반음식점으로 부가세 포함가격임) 2006년 7월 가격은 확정치이며, 2006년 8월 가격은 잠정치임

2) 당 센터 조사원이 전국 5개 주요 도시의 45개 유통업체를 방문 조사한 가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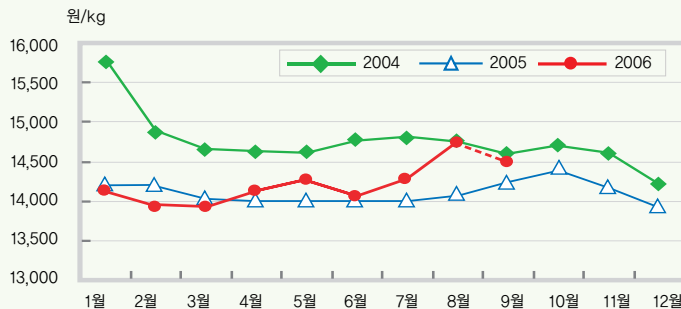
3) 수산물 전문 전자상거래 사이트(<http://www.fishsale.co.kr>), 싱싱회는 활어 1kg 기준 가격임

가격 전망

● 9월 활넙치 도매가격, 약보합세 전망

- 넙치출하량은 다소 증가하고 수출물량 역시 수출가격 상승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내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어 등 계절성 활어의 공급증가로 대체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활넙치 가격은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활넙치(상품) 도매가격 전망〉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활넙치(상품) 평균 도매가격

주 : 2006년 9월은 전망치임. 8월 가격은 8월 28일까지의 잠정치

해외 동향

● 8월 일본 도매시장의 한국산 활넙치 도매가격, 전월 대비 상승

- 8월에 오오사카중앙도매시장(本場)에서 거래된 한국산 활넙치 도매가격은 전월 대비 2.9% 상승한 kg당 1,980엔이었으며, 작년 동월 대비 44.7% 상승하였다.
- 반면 일본산은 전월 대비 32.0% 하락한 kg당 1,134엔이었으며, 작년 동월 대비 18.6% 하락하였다.

〈일본 오오사카중앙도매시장(本場)의 활넙치 도매가격〉

(단위 : 엔/kg)

구분	2005년	2006년		전월 대비 (%)	작년 동월 대비 (%)
	8월	7월	8월		
한국산	1,369	1,925	1,980	2.9	44.7
일본산	1,394	1,668	1,134	-32.0	-18.6

자료 : 일본 오오사카중앙도매시장 (<http://www.shijou.city.osaka.jp/sikyo/sikyo.html>)

주 : 2005년 8월과 2006년 7월은 확정치, 8월 가격은 중순까지 가격임

● 중국, 양식사료 원료인 어분 가격 급등 후 소폭 하락

- 양어사료의 주원료인 페루 · 칠레의 어분 가격 폭등으로 인해 올 초 톤당 6,200위안에 거래되던 수입 어분 가격이 6월 톤당 9,800위안까지 급등하면서 중국 내 수산물 양식 어가의 생산비 상승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8월 들어 어분의 수입가격이 톤당 8,500 ~ 8,700위안으로 하락하고 중국내 어분 수요가 급감하면서 어분 수입가격이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다.

● 광둥성, 심층 가두리 양식 개발에 박차

- 광둥(廣東)성은 산토우(汕頭)시를 중심으로 심층 가두리 양식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설치된 심층 가두리는 산토우시에만 200개가 넘는다. 광둥성에 설치된 심층 가두리는 방추형으로 16~17m 정도의 규모이다. 최근 난아오(南澳)현에 내습한 수차례의 태풍에도 불구하고 심층 가두리 양식시설은 큰 피해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